

『군계 서자』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58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점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탄식이 흘러나 온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축복된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가 낮아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탄은 교회에서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경험으로 맞지 않는 마음으로 자꾸만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실패케 하고, 불행케 하고, 멸망케 하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우겨 싸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거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19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인류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의 날이다. 이 날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날이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축복 앞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생긴다. 예수님이 체포 당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공생애 기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불안정한 상태였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불신의 장애물은 주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고(눅24:36),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시며,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된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24:48)"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성령(행1:5)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신 후 승천하셨다(눅24:49).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성령강림은 교회의 시작으로 교회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성령은 초대교회 생활에서 지배적이며 실재였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와 치유의 모든 능력과 지도력의 원천이 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핍박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두려움, 의심,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눅11:13).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롬8:9).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90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현실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을 도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냈고,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성을 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는 것이다. 나팔을 기도를 의미한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도 없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앞이 캄캄하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돼도,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둘째, 연약케를 메는 것이다. 연약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61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구해라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럼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 충만'하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 할 때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알콜 중독, 마약, 우울증 등 그 어떤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라도 반드시 죄를 이기고 그 죄에서 벗어난다.

둘째, '성령 충만'해야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한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배가 지겨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없는가? 말씀 듣기가 힘든가?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되는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한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성령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왜 주님은 성령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간단하게 한 마디로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을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것이다. 약한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성령을 먼저 구해야 한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4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 그때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 가나안 여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빨리 그녀의 딸을 고쳐주고 보내라고 할 정도였다.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가나안 여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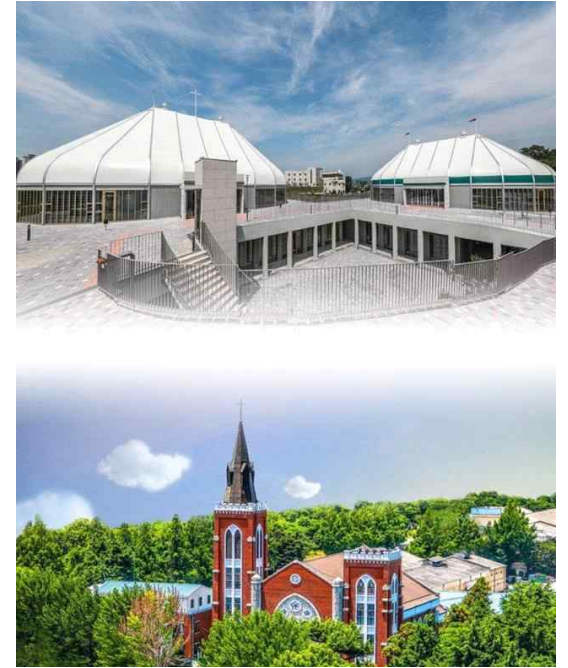
예수님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24절)"고 대답하셨다.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가나안 여자는 인내하고 끈기 있게 다시 간청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매몰차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딸을 고쳐야만 했던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간절함은 우리를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셨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했고, 그것을 얻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다. 이런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구한 부스러기가 기적을 일으켰다.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